

넥스트바이오메디컬, 유럽인터벤션영상의학회(CIRSE)서 색전 치료재 임상 결과 발표

- ▶ 세계 최초 근골격계 통증 색전 치료재 'Nexsphere-F' 일본 임상 결과 발표
- ▶ 분해시간 조절 혈관 색전 치료재 'Nexsphere' 자궁근종 색전 한국 임상 결과 발표

<2023-09-25> 넥스트바이오메디컬이 유럽 학회에 참여해 색전 치료재의 임상 결과를 발표했다.

혁신형 치료재를 개발 및 수출하는 넥스트바이오메디컬(대표이사 이돈행)은 지난 9월 8일부터 13일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'유럽인터벤션영상의학회(Cardiovascular and Interventional Radiological Society of Europe, 이하 CIRSE)'에 참가해, 대규모 부스 전시 및 임상 결과 발표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5일 밝혔다.

CIRSE는 유럽 최대 규모의 인터벤션 영상의학 학술대회이다. 이번 행사에서는 약 8,000명의 전문가와 산업 관계자가 참여하였으며, 약 200개의 세션과 800개의 발표, 100여개의 기업이 부스를 운영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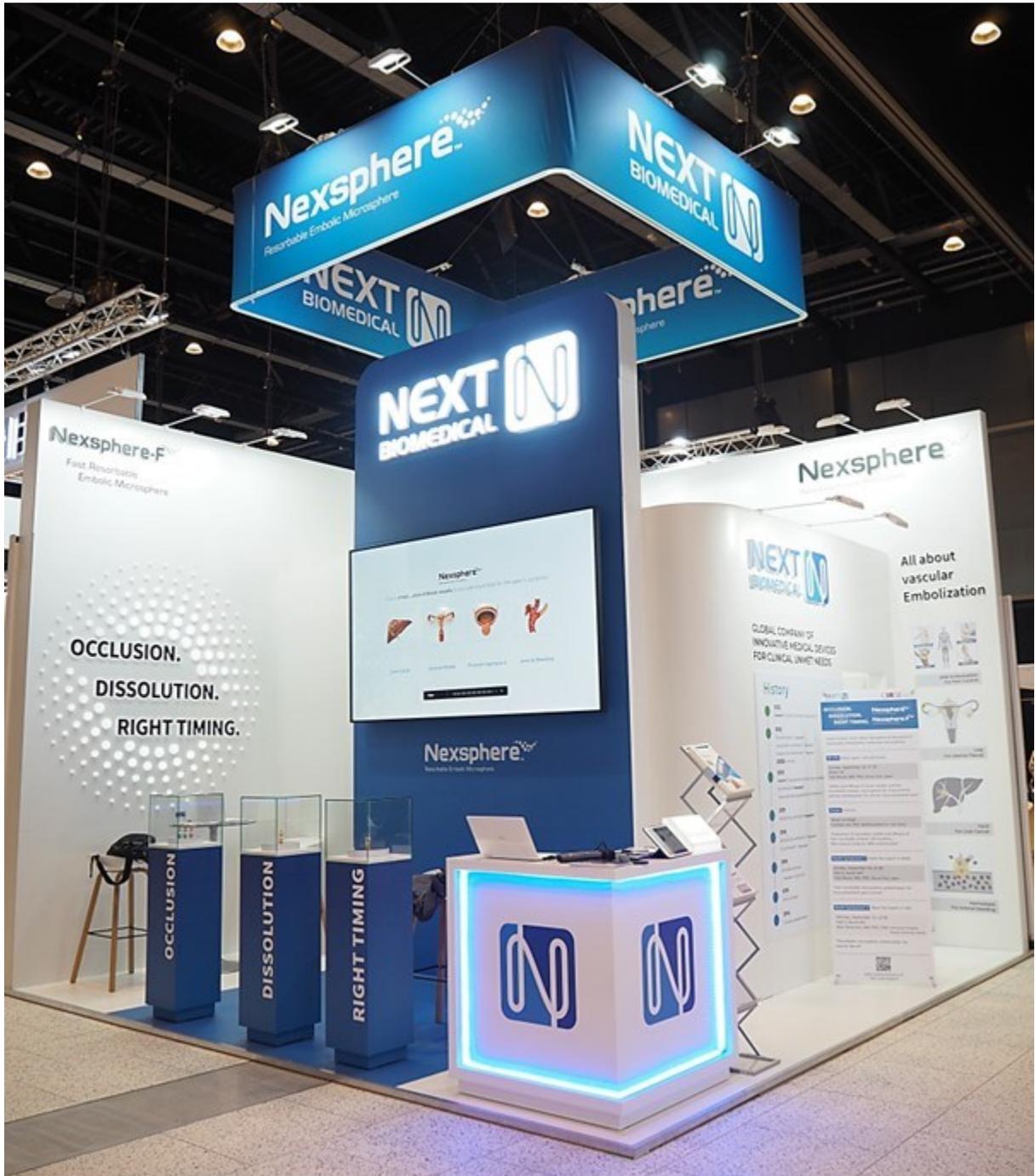
넥스트바이오메디컬은 이번 학회에서 대형 부스를 설치해 자사의 제품을 홍보했고, **색전 분야 KOL(Key Opinion Leaders)을 초청한 심포지엄을 개최해 근골격계 색전술 및 자궁근종 색전술에 대한 최근 임상 결과를 발표했다.** 이번 임상 발표에서는 국내에서 진행된 자궁근종 색전 치료재와 일본에서 진행된 근골격계 색전 통증 임상 결과 두가지를 발표했다.

넥스트바이오메디컬 관계자는 "근골격계 색전 통증 치료법은 관절염의 비정상 혈관을 막아 통증을 치료하는 신개념 치료법"이며, **"이번에 발표한 일본 임상 결과에 따르면 110명의 관절염 환자 중 약 76%가 통증 감소를 경험했고, 경쟁품과 달리 어떤 부작용도 발견되지 않았다"**고 전했다. 더불어, 이 임상 결과는 해당 학회에서 우수 발표 논문으로 선정돼 큰 주목을 받았다고 밝혔다.

넥스트바이오메디컬은 이번 행사를 통해 분해성 색전 제품에 대한 높은 관심과 임상적 수요가 확인했으며, **다수의 유럽 주요 업체로부터 협력 제안을 받아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**이다. 현재 **관절염 색전 치료재인 Nexsphere-F는 한국 KMFDS와 유럽 CE-MDD 인증을 완료했고, 추가 임상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시판 후 임상을 추진할 예정이다.**

또한, **미국 FDA 허가를 위한 작업도 진행 중**이며, 기 완료된 임상시험에 대한 논문도 올해 말 게재할 예정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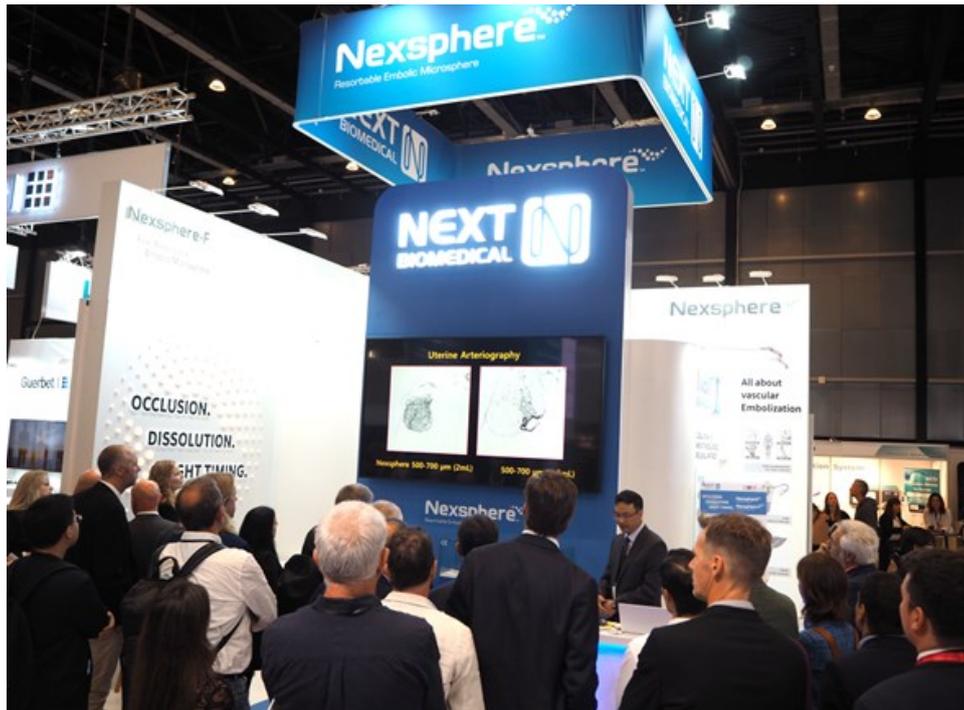
한편, 넥스트바이오메디컬은 임상 근거 확보를 위한 임상시험 비용 및 해외 수출 증대로 인한 시설 증설에 투자하기 위해 4분기 중 코스닥 예비심사 청구를 할 계획이다. 상장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.



[CIRSE 2023 넥스트바이오메디컬 부스]



[넥스트바이오메디컬 부스 내 일본 KOL 임상 결과 발표]



[넥스트바이오메디컬 부스 내 국내 KOL 임상 결과 발표]